

생애 · 사상 다룬 기초 자료 부족 ... 연구 부진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 '일연 스님' 연구 성과는?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정토학과 국문학 언어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작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학제적 접근은 활발하지 못하다. 원인은 간단하다. 일연 스님에 대한 사료(史料)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조동오위> 보각국사비 등이 일연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증거물이다. 일연 스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이었을 뿐 아니라 국사(國師)로서 왕을 보필하고 우리민족의 주체성과 유구한 역사를 담아 낸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스님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7월 6일, 음력 6월 11일)을 맞아 스님에 대한 연구 현주소를 살펴봤다.

전문 연구인력 부족 · 재정 어려움도 난제 공동연구작업 네트워크 등 환경 구축해야

▶ '일연' 주제는 논문 · 저술 50편도 안돼

일연 스님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생애와 사상을 짚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삼국유사> <조동오위> <능엄경환해산보기> 보각국사비 등이 전부다. 하지만 이나마 남아 있는 자료에도 스님의 사상과 생애에 대한 사색한 언급보다는 개괄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를 인용하거나 부속재로 다룬 연구 논문과 저술은 2700여 편에 이르고 있지만 저자 일연 스님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과 저술은 50여 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이 <삼국유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는 인정하되 저자인 일연 스님의 사상과 생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고조선-삼국시대의 역사적 내용을 담은 야사

(野史)인 <삼국유사>를 통해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정확히 연구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조동오위> 또한 조동종 스님들의 어록을 경전 주석서 형식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지은이의 사상과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중 조금이나마 일연 스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능엄경환해산보기>와 보각국사비다. <능엄경환해산보기>는 일연 스님과 보환 스님의 문답 내용을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보각국사비에는 일연 스님의 생애와 저술 등을 4000자 정도의 한자로 기록하고 있다. 일연 스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단체도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 인가사 주지)이 유일하다. 학자도 동국대 김상현, 중앙승가대 김상영, 연세대 국학연구원 고은기, 경북대 주보돈 교수 등 15명 내외다. 통상 불교학술 단체의 연구 인력이



군위 인가사에서 매년 열리는 일연스님 다례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작게는 30명 많게는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세대 고은기 교수는 "일연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록이나 시집이 다량 남아 있어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많다"며 "이 같은 원인은 어말선초 시기의 역불승우 정책과 일연 스님의 사상과 업적 등을 배척한 유학자들의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사로서의 면모와 해박한 교리적 지식의 겸비는 당시 국사의 직위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에 일연 스님이 분령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 후원제도 마련해 활성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연 스님에 대한 연구 활동과 성과는 얼마나 될까. 가장 왕성한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일연학연구원이다. 일연학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여 편의 논문 내용과 토론을 분석해 2005년도에 발간한 <삼국유사 연구 창간호>를 들 수 있다. 또 2003년 <삼국유사> 1-5권을 영인본으로 만들어 관련 학자와 사찰 등에 보급한 <영인본>을 비롯해 <삼국유사>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물로 평가 받고 있다. 2005년에는 <보각국사비 탁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받았다. 이 보고서는 금석학자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비바람에 마모된 보각국사비에 담겨진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업적 등을 판독해 냈으며 일연 스님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일연 스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요원 부

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일연 스님에 대한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학자는 10여명으로 '일연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 연구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비록 설립된지는 오래됐으나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란 무리다. 부족한 재원도 일연학연구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교구 본사인 은혜사의 지원과 후원금을 통해서 연구원 운영자금과 세미나 개최 비용, 학술 자료 수집 비용 등을 충당하고는 있지만 질 높은 연구 환경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재정이 충분치 않으면서 '일연학술상'을 제정할 경우 학술활동은 물론 개별연구에도 상당한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는 "일연학연구원 이 매년 1차례에 걸쳐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고 있지만 학자들의 무관심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3-4편의 논문도 발표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연 스님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학자들끼리의 공동 연구 작업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 마련 △관련 학자들의 정례적인 토론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가사 주지 상인 스님은 "일연 스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 20여명이 정기적인 토론회를 가지기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미나 개최와 석·박사 논문 수집 비용, 관련 학자 육성·배치 등을 사찰이나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학술단체 후원 제도' 체제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는?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은 고려 후기 승려로 초자는 회연(晦然), 호는 무극(無極), 속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견명(見明)이다. 장산(지금의 경산)에서 태어났으며 8살 때 해양(지금의 광주로 추정) 무량사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고 19살에 출가해 설악산 진전사의 고승 대웅(大雄)의 제자가 되어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 보당암 주지로 있으면서 참선에 몰두해 '살의 경계는 소멸이 없고, 부처의 경계는 더함이 없다(生界不滅 佛界不增)'라는 말을 참구해 득도했다고 전한다. 49살 되던 해에 정안(鄭安)의 청을 받고 남해 정림사로 내려와 남해의 분사대장도감 작업에 참여했다. 59살에는 대선사에 올랐다. 61세 때 강화도 선원사에 머물면서 개당하여 구산선문(九山禪門)중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에 속하는 '목우자보조 지법'의 법을 이었다. 81세 되던 해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귀향했다가 이듬해 군위 인가사를

59세때 '대선사' 지위 올라

저서 100여편 중 일부만 남아

중건하고 당시의 선문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구산선문도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 1289년(충렬왕15년) 7월 8일 인가사에서 세수 84세, 법랍 70세로 입적하였으니, 시호를 보각(普覺), 탑호를 정조(靜照)라 했다. 한편 일연 스님의 저서로는 <선문연승사원> <중편조동오위> <화록>, <계승집저> <대장수지록> <조정사원> <제승법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현존하는 자료는 극히 일부다. <삼국유사>는 1281~1283년(충렬왕 재위 7~9)에 저술했으며 5권 2책으로 구성된 야사(野史).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고대 사적(史籍)의 최고봉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내세울 수 있게 하고, 단군신화는 단일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전설·신화가 수록돼 있으며 향찰(鄕札)로 표기된 <해성가> 등 14수의 신라 향가(鄕歌)가 실려 있어 <균여전>에 수록된 11수와 함께 한국 고대 문학사의 실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내용상 상·하로 구분되며 역사적 사실을 주로 다룬 1, 2권은 상책에 해당하고, 불교적 내용을 주로 다룬 3, 4, 5권은 하책에 해당한다.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유사>는 권과는 별도로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파은(避隱), 효선(孝善) 등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행사

행사	일시	장소	연락처	주최
일연 탄신 기념 법회	7월 6일	군위 인가사	(054)383-1161	인가사
일연 탄생 축하음악회	7월 7일	경산시 계정순 특설무대	(053)811-2231	경산시
일연 · <삼국유사> 국제학술대회	7월 20-2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09-8111	일연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삼국유사 대제전 기념음악회	7월 28일	인가사	(054)383-1161	인가사
삼국유사 대제전 주제공연 / 일연문화상 시상식	7월 29일	인가사	(054)383-1161	인가사
산사 불교 단편영화제	7월 29일	인가사	(053)420-8060	대구특별영화협회
이희석 시인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여행	7월 29일	경주 일대	(053)423-4244	예술마당 숲
일연 인적 법회/보각국사비 복원제막식	8월 1일	인가사	(054)383-1161	인가사
제87회 경북 전국체육대회 '일연주제' 로 개/폐막식 행사	10월 17일/23일	김천종합운동장	(054)420-6114	김천시



불교 조계종(佛敎 曹溪宗) 創宗 公告



창종 선언문(創宗 宣言文)

悠久한 歷史와 오랜 傳統에 빛나는 우리佛敎가 이 아름다운 國土에 傳해 온 以來로 敎宗과 禪宗이 그 너를 대로 燦爛한 佛敎文化의 꽃을 피웠다. 敎宗의 五派와 禪宗이 相互鼎立하여 처음에는 敎의 紀綱을 바로 세우고 禪門을 開山하여 敎化의 堂을 열고 宣揚에 使命을 다하다가 12世紀 高麗때는 안팎으로 政變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는 가운데 佛敎의 戒行이 解弛해져 안으로 禪과 敎의 對立이 極甚하여 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宗教本然의 姿勢를 잃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 後 佛敎 僧團의 宗教的 危機感을 直視하고 九山禪門의 代表的 地位로서 普照國師 智訥의 頓悟漸修와 定慧雙修思想을 基底로 하여 麗末에 中國 石玉淸空禪師로부터 達磨이래 六祖의 眞髓와 臨濟法脈을 이은 太古 普惠國師 宗祖로하여 法界圓隆 會三歸一의 思想으로 禪敎兩宗 統合에 그 높은 뜻이 이어받아 禪家의 이어온 法을 널리 宣揚하고자 우리나라 佛敎의 獨特한 宗門이 開山된 것이다. 過去 三國의 찬란한 佛敎文化가 高麗에 이르러서도 發展 維持되어 왔으나 其後 李朝時代의 背佛崇儒 思想에 의해 寺院은 깊은 山中으로 逃避하기에 이르렀고 五百餘年이란 긴 歲月동안 衰殘의 길을 걸어 왔으나 今 佛敎 暗黒時代이며 法亂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雨後竹筍같이 諸 宗派가 亂立하는 가운데 우리도 義然히 일어나 佛祖의 慧命을 이어 나가려는 時代的 使命感과 大願力으로 大同團結하여 佛敎曹溪의 宗名을 公稱하고 宗憲 宗法을 制定하여 先代佛敎 本然의 斬新한 모습으로 傳法度生의 門을 열어 敎化에 邁進하고자 佛敎 曹溪宗 創宗을 宣布한다.

佛紀 2548年 3月 1日 佛敎 曹溪宗 創宗 發起人 一同

任員 名單

宗正 無空 海印 부종정 靈山
원로회 의장 慧珠 고 문 德相 종회의장 如如

총무원장 性霞	조 직 부 장 慧 性
사무총장 道燕	조 사 부 장 大 松
총무부원장 現默	교 무 부 장 曉 靜
포 교 원 장 補 一	사 회 부 장 智 宣
중앙교육원장 曉天	섭 외 부 장 智 明
호 법 원 장 德 岩	재 무 부 장 慧 禪
전국비구니회장 度圓	규 정 부 장 海 松
전국선원장 松 岩	홍 보 부 장 妙 覺
전국거사림회장 이벽봉	총 무 부 장 高 理
전국신도회장 金正憲	

전국교구 · 광역직할교구 · 해외특별교구

• 佛敎 曹溪宗 總務院 : 무량사 주소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28번지 전화 : (043)851-4879